



연휴간 트럼프 vs 바이든 격차 심화

2월 8일 트럼프 후보의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진행. 대법관들의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관들의 정치 진영을 떠나 전반적으로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룸.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이 희박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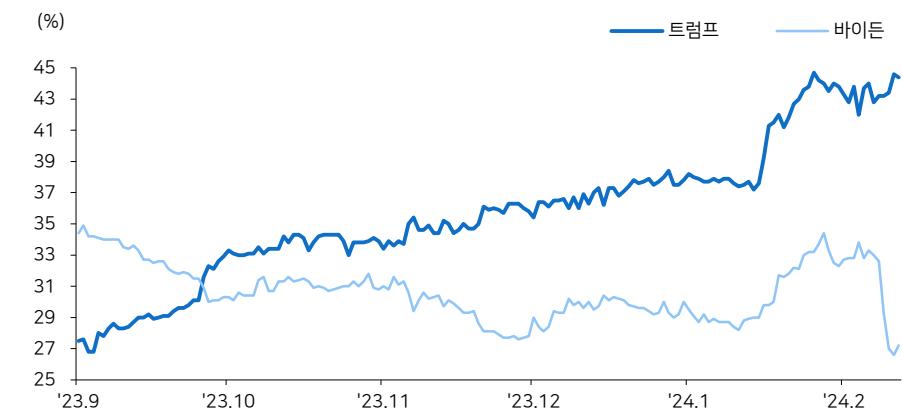
중도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콜로라도주 판결이 유지될 경우 다른 쪽에서도 박탈 소송을 낼 것이며 또 다른 일부 주의 투표 용지에서 제외될 것이고 (전체 미국이 아닌) 일부가 대선을 결정하게 될 것.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결과"라고 언급. 진보 진영에서도 의회 난립 사건이 내란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 질문 취지가 해당 사건에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체에 대한 신중함을 드러낸 것

트럼프측 변호사인 조나단 미첼은 헌법상의 미국 정부 관리(officer of the United States)라는 표현이 임명된 공직자만 가리키며, 선출된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 따라서 대통령은 해당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헌법에서 말하는 공직을 맡는 것(holding office)과 공직에 출마하는 것(running for office)은 다르다고 주장

바이든 고령화를 문제삼은 공식 문서 공개로 바이든 지지율 불안. 백악관 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2월 8일 바이든 불기소 발표. 관련 문서가 발표되었는데, 바이든을 '기억력이 나쁜 노인(elderly man with a poor memory)'으로 묘사. 트럼프 vs 바이든이 너무 늙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62% vs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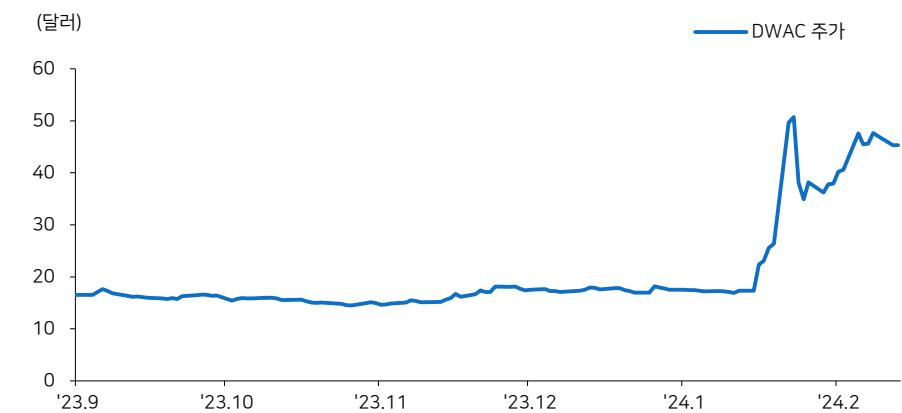
연휴간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 격차 확대. 트럼프 후보 자격 유지 여부의 유일한 리스크였던 사법 리스크는 크게 축소, 반면 바이든은 고령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지지율에 문제 발생

그림1 트럼프 승리와 바이든 승리에 베팅하는 비율 격차 심화



자료: RealClearPolitic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트럼프 테마 SPAC주인 DWAC 주가 상승 지속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